

《인 사 말》
《ごあいさつ》

이토 이사오
伊藤 勲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財団法人 ユニバーバル財団 理事長

인사말



이토 이사오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제 5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의 개최에 협력해 주신 각 단체 여러분들의 참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년, 일본은 이태리를 넘어서, 세계제일의 장수국가로 되었습니다. 2005년에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고령화 비율이 9%를 넘김 시점이지만, 일본을 능가하는 열기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현상은 이미 일본,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장수사회를 기다리며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의 관련학회, 모든 단체등은 한 분 한 분의 고령자가 자립과 존엄을 가지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 실천?연구활동에 임하며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부정할 수 없이 세계의 장수국의 톱 러너(top runner)로서의 역할이 주목, 기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공동과제로서 초점을 잡고, 동아시아지역의 상호지원?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는 다문화공생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시야도 지역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워커의 역할이 요구되어 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시민의 힘이 사회를 변화 시킨다~시민주도형의 지역복지를 위한 소셜워커의 역할”이라는 테마를 선정하였습니다. 한일양국의 공통적 관심사로서, 관?학?민의 입장에서 발표?토의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모델의 제시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5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한국 일본에 마땅해야 할 고령자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고, 풍부한 장수사회를 향한 대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_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심포지움 개최에 당재단의 활동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ごあいさつ



伊藤 勲

財団法人 ユニバーサル財団
理事長

第5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り、ご協力くださいました各団体ならびにご来場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近年、日本はイタリアを抜いて世界一の長寿国となりましたが、2005年を境に総人口が減少に転じ、年金など社会保障制度や経済成長にも影響を与えるだけに、論議を呼んでいます。一方、韓国では高齢化率は9%を超えたところですが、日本を凌ぐ勢いで高齢化が進んでおります。

こうした少子高齢化現象はもはや日本、韓国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それだけに世界中の誰もが、安心できる長寿社会を待ち望んでいるのです。今、各国の関係学会、諸団体等は、一人ひとりの高齢者が自立と尊厳をもって安心して生活できるよう、日々実践・研究活動に取り組み、真摯な努力を傾注しておられます。

韓日両国は、今後、否応なく世界の長寿国のトップランナーとしての役割が注目、期待されるでしょう。私たちは“人々が安心して暮らせる社会の実現”を共通課題として捉え、東アジア地域の相互支援・協力のシステムを構築し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

さらに、少子高齢化・人口減少は、多文化共生時代をも迎えていくと考えられます。そこには、国際的な視野からも地域福祉の問題を解決でき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が要求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このような観点から、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市民の力が社会を変える～市民主

導型の地域福祉のため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というテーマを選びました。

韓日両国の共通の関心事として、官・学・民の立場から発表・討議し、未来の望ましいモデルの提示を期待するものでございます。

この度の第5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開催によって、韓日の高齢者福祉の在り方に対する理解と関心が深まり、豊かな長寿社会に向けた取り組みの一助になれば幸いです。今後ともシンポジウム開催ならびに当財団の活動にご理解とご協力を賜り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